

아오시마 신사: 오나리미치

아오시마 신사의 주요 샤덴군(신체를 모시는 건물군)과 본래 성역이었던 모토미야를 연결하는 60m 에 이르는 길은 오나리미치(귀인들이 통행하는 길)라고 불렸습니다. 이 길은 1907 년에 황태자 요시히토(훗날의 다이쇼 천황, 1879-1926)가 아오시마 신사를 방문할 때 정비되어 천황과 황족들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으나, 1960 년대 말엽 이후 문을 개방하면서 참배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나리미치를 걸었던 유명한 황족으로는 1920 년에 황태자로서 방문하여 아오시마섬까지 최초로 현대적인 다리를 건설한 계기가 된 히로히토(훗날의 쇼와 천황, 1901 - 1989), 1962 년에 왕세자로서 신사에서 참배를 올린 아키히토(현 상황, 1933-), 그리고 전후 최초의 일본 총리였던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1887 - 1990)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황족들의 발자취를 좇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문을 지나 예마(소원을 적어 신사나 절에 봉납하는 목판)가 걸려 있는 ‘기도의 고도(古道)’를 걷게 됩니다. 여기부터 오나리미치는 정글처럼 무성하게 자란 비로야자 숲속으로 길이 이어지며 모토미야에 다다르게 됩니다.